

제4장 감리교회보 기자 시절

강명석은 1922년 8월부터 조선 미(남) 감리교회 선교부 전도국에서 『감리교회보』의 편집기자(編輯記者)로 근무하면서부터 장로교회가 아닌 종교감리교회에 출석하므로 감리교회로 교적(教籍)을 옮겼다. 당시 종교감리교회는 독립운동가인 오화영[吳華英, 1880.~1960. 조선 중앙 YMCA 위원 등을 역임, 정치인] 목사가 담임하고 있었는데, 그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오화영은 1919년 삼일운동 당시 이승훈[李昇薰 1864.~1930. 일제강점기 오산학교 교장, 동아일보사 사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교육가]과 더불어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개성(開城)방면으로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배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강명석이 종교감리교회를 출석한 지 2개월 되었을 때인 1922년은 조선교회에 주일학교가 세워진 지 34년이 되는 해였다. 그때 강명석의 나이 22세로 젊은 나이였는데, 문필가(文筆家)로 등단(登壇)한다. 그가 쓴 처녀 작품은 유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느낀 것을 정리한 「유년 주일학교」[幼年 主日學校, sunday school]이다. 그는 이글을 『기독신보』에 발표하였다. [기독신보(基督申報, The Christian Messenger)는 1915년 12월

8일 창간된 초교파 기독교 신문으로 장로교회의 『예수교회보』와 감리교회의 『그리스도회보』를 통합하여 발행한 주간 신문이다. ‘복음 정신의 구현자’로 교회와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대변했던 신문이다.] 필자는 2008년 6월에 강명석의 모든 글을 현대어로 언해(諺解)하였는데, 그 글 중 그의 처녀 작품인 「유년 주일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현대어로 정리된 강명석의 모든 글을 『강명석의 글 모음집』으로 출판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고 있다.]

(1) 임원 여러분에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 주일학교가 시작되어 영아부터 장년들까지 많은 교훈을 주었고, 교회와 사회에 적지 않은 유익을 끼쳤다. 그러나 주일학교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10년 전 시작할 때 보다 어느 정도 진보된 면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퇴보한 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주일학교 전체를 예로 들어서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년 주일학교에 대해서만 몇 마디 참고로 쓰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 가운데는 유년 주일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교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마다 설립된 유년 주일학교의 성장에 대한 확신은 그만두고라도 유년 주일학교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확

신할 수 없다. 물론 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주일마다 성장하는 유년 주일학교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예는 전 한국교회의 유년 주일학교 수에 비교하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형편에 처한 유년 주일학교가 어떻게 장래 이상적인 인물을 길러낼 수 있으며, 유년 주일학교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유년 주일학교 성장에 따른 유익에 대하여 번거롭고 혼잡한 말을 쓰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다 짐작할 일이기 때문에 더 기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략하겠다. 다만 유년 주일학교 미래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임원 여러분에게 학문이나 생각이 얕은 사람이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마디만 하소연하려고 한다.

① 목회자 여러분에게

현재 각 교회 목회자들의 유년 주일학교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를 살펴보면 정말 냉정하다고 할 수 있다. 벌써 10여 년을 매년 다섯에서 여섯 교회를 다니면서 유년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들과 같이 놀아도 보았지만, 목회자가 유년 주일학교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일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비단 필자가 출석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에서도 모두 같은 것 같다. 물론 교회 일이 너무 복잡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 이면을 보면 성의가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

유년 주일학교를 잘 돌아보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목회자 중에서 이런 일을 목격하였다. 교사들이 유년 주일학교 예배순서를 계획할 때 찬송가를 네 차례 혹은 다섯 차례를 넣었는데, 이것을 본 목회자가 너무 찬송가가 많이 들어간 것은 잘못되었다고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한 교사가 “어린이들에게는 음악에 취미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므로 계획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하자, 교사가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의견을 말한다고 즉시 교사직에서 제명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장로교회에서는 당회(목사와 장로들의 모임)라고 모여서 유년 주일학교 임원(교사)을 선정하는데, 목회자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유년 주일학교 운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조금도 미루어 생각해 보지 않고, 기업체의 사장과 은행의 지점장 같은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도 받지 않고 억지로 임명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필자는 유년 주일학교 미래가 걱정되었고, 당회의 잘못된 교회행정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으며, 목회자와 장로들의 행위가 우습기도 하였다.

유년 주일학교는 교회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며, 교회 성장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도 아니다. 어린이들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다. 어린이들의 인격, 역량, 사상 따위가 발전하도록 가르치고 키우기 위하여 당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목회자가 유년 주일학교의 운영목적과 미래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보통으로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교사를 제명할 수 있을까? 또한, 유년 주일학교 미래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후 교사직에서 그만두도록 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과 기준을 적용하여 제명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강명석(1922.10.25.), 「유년 주일학교(1)」, 『기독신보』, 5.]

물론 목회자마다 전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목회자들이 유년 주일학교에 대하여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목회자니까 자질구레한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년 주일학교에 대하여 너무 냉정한 태도를 보이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히려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2.12.~1865.4.15. 미국 제16대 대통령] 같은 사람을 모방하여 성심성의껏 유년 주일학교를 돌보고 더욱더 노력하면 길 잃은 어린양 같은 어린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다고 확

신한다.

② 목회자와 교사 여러분에게

목회자의 책임과 교사의 책임을 구분하여 책임추궁을 할 수 있겠지만 필자가 쓰지 않더라도 잘 알 것이므로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다. 단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쓰려고 한다. 목회자와 교사들의 ‘무성의’가 하나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나태’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금 잘난 체하는 말 같이 들리겠지만, 유년 주일학교 교사로서 1년을 계속 출석하는(개근) 교사를 아직 몇 분을 보지 못하였다. 교사 자신의 복잡한 다른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봉급이 없이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며, 나태(게으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일에 대한 관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살펴본 대로 지적한다면 나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본래 느리고 게으르며 남에게 의지하기 좋아하는 성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비평하기를 국민성이라는 말을 주저 없이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누구나 어떤 사업이든지 남보다 열 배나 더 뛰어나가기를 힘쓰고 희망한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든지 방해가 되는

것은 느리고 게으른 성격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의를 가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어린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는가?

교사 된 자가 매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결석을 하면서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주일마다 출석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또한, 어린이들에게 주일마다 출석하라는 말을 해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교사들이 왜 많을까? 자신이 아무리 학자라고 할지라도 조금도 준비를 하지도 않고 유년 주일학교 예배에 출석하여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은 교사들의 가르침은 마치 팽과리 소리와 같아서 어린이들의 귀에 시끄럽게만 들릴 뿐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에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에게 한마디 권면하고자 한 말은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방문(심방)하여 인도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대로 매 주일 1회씩 교사들을 방문하여 유년 주일학교에 대하여 의논하면서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매 주일 결석하지 않도록 정성껏 노력해 준다면 이상적인 교회를 틀림없이 곧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천박한 견문으로 여러분에게 실례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 없으며, 밑도 끝도 없는 것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조선 각

교회의 유년 주일학교 미래만 목표 삼아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그대로 몇 마디 적은 것이므로 용서하고 유년 주일학교에 대하여 유익한 점을 취하여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강명석(1922.11.1.), 「유년 주일학교(2)」, 『기독교신보』, 5.]

우리나라 최초의 주일학교는 1888년 이화학당(梨花學堂)에서 여성교회를 시작함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05년 9월 11일(월) 이화학당 예배실에서 장로교회 4개 교파와 감리교회의 2개 교파가 연합하여 선교사 중심의 ‘한국복음주의 선교회 연합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 in Korea]’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연합공의회 안에 ‘주일학교 위원회(Sunday School Committee)’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조선교회 주일학교운동의 첫해이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2006),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209, 365.]

강명석은 「유년 주일학교」라는 글에서 10여 년을 매년 5, 6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느낀 점을 말하면서 ‘성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먼저 교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학교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목사에게 ‘성의가 부족한 목사’라고 하였다. 또한, 신앙과 자질보다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교사로 임명하는 목사의 태도를 우습다며 비판했다. 다

음으로 교사들이 결석하는 것은 행동이 느리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르칠 내용을 읽어보지 않는 교사들에게 “그대들이 가르치는 소리는 팽과리처럼 아이들의 귀에 시끄럽게만 들릴 뿐, 신앙 성장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였다.



강명석이 출석하고 목회했던 당시 종교교회 예배당, 종교교회사

강명석은 유년 주일학교는 교회 체면(體面) 유지를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영혼(靈魂)을 인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교회 성장(양적 성장)의 도구로 여기지 말고, 예수처럼 어린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와 교사가 되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가복음 10:14)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강명석은 이런 자세로 1922년 8월부터 종교감리교회 유년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회원으로 헌신(獻身)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년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한 지 8개월이 되던 1923년 4월 종교감리교회 엡윗청년회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 연사로 선정되어 주제 발표를 한 사실이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남녀토론회: 1923년 4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부터 종로기독교청년회관(현 서울 YMCA)에서 종교엡윗청년회 주최로 남녀토론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주제로 토론한다고 한다. (1) 입장료는 남자가 30전이요, 여자는 20전이라고 한다. (2) 토론회 주제: ‘조선 여자사회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남자의 죄나, 여자의 죄나’. (3) 연사: 남자 편: 박하경 양, 유각경 여사. 여자 편: 전주부군, 강명석 군.” [1전은 화폐 단위로 ‘원’이나 ‘환(圓)’의 1/100에 해당한다.] [『조선일보』(1923.4.11.), ‘남녀토론회’; 『동아일보』(1923.4.11.), ‘모임’]

강명석이 종교감리교회를 출석할 당시 ‘종교엡윗청년회[The Epworth League, 의범청년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출석하자마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엡윗청년회는 교회개혁자이며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의 고향인 ‘엡윗’(Epworth)에서 온

이름으로 1872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조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7년 5월 5일 정동감리교회[貞洞監理教會, 현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46 정동제일교회, 기감]에서 존스[George H. Jones, 조원시(趙元時), 1867.~1919.]와 노블[William A. Noble, 노보을(魯普乙), 1866.~1945.] 선교사에 의해 조선 최초 기독교 청년단체로 조직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엠윗청년회]

강명석은 종교감리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이듬해인 1923년 5월 21일(월) 종교교회 엠윗청년회의 정기총회에서 수양 부장으로 선출되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강명석의 청년회 활동에 대하여 『종교교회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23년 엠윗청년회 수양부장으로 활약한 강명석도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인물이다… 종교교회 엠윗청년회는… 강명석, 양매륜, 박인덕 등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 교계와 사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활동무대였다. 이들의 활동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고 일반 교육계와 사회로 연장되었다.” [『종교교회사』, 252~253.]